

변화와 도약 신뢰 열린소통

# LBI

## LOOK BEYOND

VOL.49 LB NEWS LETTER 2015 WINTER



### LB Investment

#### Korea(Seou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3층  
**TEL** 82.2.3467.0500  
**FAX** 82.2.3467.0530

#### China(Shanghai)

RM 4607 Raffles city,  
268 Xizang Rd(M), Shanghai, China  
**TEL** 86.21.6252.0022.205  
**FAX** 86.21.6210.6749

#### China(Beijing)

No.6 Chaowai Ave, Vantone Center, Tower D,  
Room 2661,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5905.5825

발행인 구본천 통권 제49호 발행일 2016년 1월  
기획/편집 김민지, 조은정, 강아름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3층  
**TEL** 02.3467.0500 **FAX** 02.3467.0530  
[www.lbinvestment.com](http://www.lbinvestment.com)





## CONTENTS

- 04 • LB News
- 07 • LB in Media
- 10 • VC News, PE News
- 12 • Portfolio News
- 17 • New Portfolios

〈작품소개〉

구본아, 〈物(물)-physical object〉 한지콜라주에 먹, 채색, 100x160cm, 2009

암벽의 강인함과 나비의 유연함의 조화를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특히 나비는 예로부터 부귀영화와 좋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LB인베스트먼트 투자업체인 오픈갤러리에서 제공한 작품입니다.

## KDB • NPS • 고용보험기금 • 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등 LB 글로벌 익스팬션 펀드 출자 확정

### 총 850억 규모의 글로벌 익스팬션 펀드결성 예정

LB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약 800억원 이상을 출자받고 85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산업은행의 중소·벤처 투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11월 국민연금을 비롯한 행정공제회, 그리고 2016년 1월 고용보험기금과 군인공제회로부터의 출자를 확정 받았다.

L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 및 국민연금에서 출자 받은 금액으로 총 8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한책임투자자(LP) 모집 차원에서 다수의 연기금 등과 활발하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가 결성되면 LB인베스트먼트는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할 전략이다. 업종 역시 모바일, 인터넷,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상해사무소 개업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LB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상해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PPStream, Six Rooms, UUCUN 등의 회사를 투자하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외자계 벤처캐피탈사에서도 국내 VC중 유일하게 25위의 선두 벤처캐피탈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익스팬션 펀드를 위해 상해법인도 한국인 2명, 중국인 3명의 최적 심사역 등을 배치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중국 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Alibaba의 게임 및 신사업파트의 박순우 상무를 영입하여, 상해법인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내에 필요한 전략적 네트워크 확보 및 다양한 마케팅 지원 등 안정적인 value-adding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L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할 글로벌 익스팬션 펀드의 대표 펀드매니저는 박기호 VC부문 대표, 핵심운용인력은 박중건 상무, 정경인 부장, Weizhou Zheng 부장이다.

앞으로 L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할 글로벌 익스팬션 펀드의 활약이 기대된다.

## 310억원 규모 “충북창조경제혁신 펀드” 결성



| 사진출처=연합뉴스 2015-10-28 |

LB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1월 310억원 규모의 벤처조합을 결성했다.

펀드명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이하 충북창조)로, 대표펀드매니저는 구중희 전무가 맡았다.

이 펀드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총 1천500억원 규모의 5개 '창조경제 펀드' 중 하나이다. 충북도와 LB인베스트먼트, LG그룹,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청주 오창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혁신대회에서 혁신펀드 결성식을 했다.

출자 금액은 LB인베스트먼트 10억원, LG그룹 15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 충북도 50억원이다. 4개 기관·기업은 2015년 20%씩 출자한 뒤 2016년 40%, 2017년과 2018년 각 20%씩 추가 출자하게 된다. 이번 충북창조 펀드를 통해 충북 소재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2015년에도 계속된 LB인베스트먼트 나눔 봉사활동,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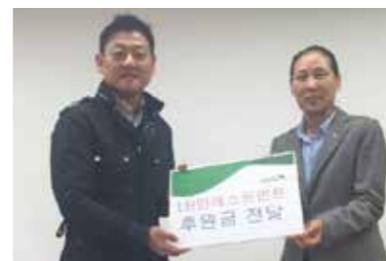


2015년 11월 20일(금) LB인베스트먼트 임직원 모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사랑 장애영아원(이하한사랑)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사랑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영유아 시설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 공간과 의료, 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LB임직원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방에 배치되어, 식사보조, 청소, 놀이, 산책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했고, 남자 임직원들은 도로에 가득 쌓인 낙엽을 수거하는 등 외부 시설 정비, 청소 등 노력봉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번에는 아이들이 바깥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인 1조를 이루어 아동 1명과 함께 광주시내 마트 나들이를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를 마친 뒤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과 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했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의 봉사를 마무리 지었다.



| 위에서부터 LB인베스트먼트 임직원,  
 구본천 대표이사와 한사랑장애영아원장 이효숙 |

## 하반기 전략회의



2015년 12월 29일 LB인베스트먼트는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2015년 업적 보고 및 2016년 사업계획을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상해 법인의 Weizhou Zheng 부장과 Lei Bao 차장은 각각 2016년 중국 투자 시장 트렌드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직접 뛰는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LB인베스트먼트는 매년 한 해의 성과를 격려하는 내부 시상을 한다.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직원에게는 LB인상을, 당해년도 투자 및 회수 Deal 중 의미가 가장 큰 Deal에는 올해의 Deal상을, 그리고 회사 인수종사업 등 혁신적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LB Innovation상을 수여한다. 2015년 영예의 LB인상은 박중건 상무와 안근영 전무에게, 올해의 Deal로는 VC부문에서는 Bolome가, PE부문에서는 오진양행이 선정되고, LB Innovation은 구경모 차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LB인베스트먼트는 일부 조직명을 변경하고 신설하며 2016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VC부문 내 SME1,2 그룹을 3개로 재편하고 그룹명을 벤처1,2,3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벤처3 그룹은 박중건 상무와 오승윤 차장이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기호 VC부문 대표는 그룹별 전문 영역에 집중하고, 체계적 관리수준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투자환경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 발전된 LB인베스트먼트가 되기를 바라며 전 임직원이 파이팅을 외치며 회의를 마쳤다.



2015년 LB인상-위에서부터 박중건 상무(큐리언트, 강스템바이오텍 등 투자), 안근영 전무(하이즈항공 투자)



왼쪽부터 VC부문 올해의 팀 Cross-Border Investment Group(Bolome 투자), PE부문 올해의 팀 김도윤 이사(오진양행 투자), LB Innovation 구경모 차장(에이티젠 투자)

## 산업의 빠른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감한 결정 필요



박기호 VC부문 대표는 "창의력 높은 젊은 인재들이 다윗이라면 대기업으로 비유되는 골리앗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96년 벤처캐피탈 LG창업투자회사로 시작해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선정한 업계 최고의 창업투자사, 정보통신부 최고의 펀드 운영사, 2005년 중소기업청 평가 이후 줄곧 최우수 등급(A+) 획득 등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LB인베스트먼트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2007년 상해 사무소를 개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growth capital, PEF로 확장해 왔으며, 최고 수익률 달성을 통해 'Asia's Leading Investment Firm'으로 자리할 유력한 창투사로 주목받고 있다. 박기호 VC부문 대표를 통해 비전을 들었다.

### 다윗의 번뜩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

박기호 VC부문 대표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 예를 들어 K-pop처럼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그로 인한 부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막대한 수익창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우버, 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를 비즈니스모델로 채택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상회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거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 변화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산업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 속에 과감한 도전 필수

얼마 전 LB인베스트먼트가 20억원을 투자해 화제가 되었던 미술품 중개 서비스 기업인 오픈갤러리를 예로 든 박 대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이며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예술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스타일쉐어(패션), 아이엠스쿨(교육), 버즈빌(모바일광고), 직방(부동산), 비트패킹(음악), 스테디맥스(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한해 동안만 모두 8개의 투자업체를 상장시키며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50억원을 투자해 공모가 기준으로 1200%의 수익이 기대되는 항공분야의 하이즈항공, 중국의 완다그룹이 투자하고 영화특수효과(VFX) 부문의 아시아 선두기업으로 성장하며 상장을 앞두고 있는 텍스터디지탈의 경우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에이티젠, 강스템바이오텍과 같은 바이오기업들의 상장 통과되어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략) 또한, 중국에서도 14개 기업에 500억 이상을 투자하여, 4개 투자기업을 바이두 등에 M&A시켜 투자원금의 5배의 높은 수익을 실현한 바 있다. 이런 활동은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전세계 2,000여개 유수한 외자 벤처캐피탈 회사들 중 25위의 리딩 벤처캐피탈 회사로 평가되었다.

### 아시아 최고의 리딩 LB인베스트먼트를 위하여

LB인베스트먼트가 아시아 최고의 Leading Investment Firm을 가시권에 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파트너십을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LB 구성원 간에도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중국 상해법인과 본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하여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아울러 투자업체의 경우 수시로 방문하여 경영전략과 투자효과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일찌감치 중국에 선제적 공략을 위한 포석을 놓았고 모바일, 게임, 콘텐츠 등과 같은 성장하는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하며 업계 굴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LB인베스트먼트의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 [한중 창업 협력 컨퍼런스] 현재 중국 투자계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플러스



LB인베스트먼트 상해법인 법인장 박순우 상무 |

“현재 중국 투자계 가장 큰 이슈는 리커창의 ‘인터넷 플러스다.’

오늘 코엑스에서 ‘2015 창조경제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韓-中 창업 협력 컨퍼런스 에서 LB인베스트먼트의 박순우 상무가 ‘2015 중국의 벤처투자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순우 상무는 과거 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의 게임 총괄을 맡았던 인물이다. 2002년에는 한빛소프트 전략기획실에서 최연소 임원에 올랐고, 2007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 최초의 중국 대형 게임사 더나인(The 9)의 사장을 역임했다. 게임업계의 ‘중국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게임업계를 떠나 한국의 창업투자사인 LB인베스트먼트로 자리를 옮겼다. LB인베스트먼트는 현재까지 총 14개의 중국 기업에 투자했으며, 그 중 4개사는 M&A를 거쳤고 1개사는 올해 IPO를 준비 중이다.

박순우 상무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중국 주식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다. 하반기에는 다행히 주식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벤처 투자 역시 3분기에는 부진했으나, 현재 4분기부터는 회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벤처 투자는 약 20년 가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투자되어 있는 총 벤처 투자 자산은 700조에 이르며, 중국 내 투자 기관은 8천 개 정도다. 박순우 상무는 “중국의 벤처 투자계는 실리콘밸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만큼 양적, 질적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한국 투자 벤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는 메이저 리그에 들어간다는 각오를 다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국제 통화 금융 시장 발전 정책과,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회사들이 미국 상장을 폐지하고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의 IPO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비해 중국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IPO의 높은 문턱을 낮추는 정부 움직임에 동조해 총 3천여 개 벤처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장했다.

현재 중국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리커창 총리의 ‘인터넷 플러스(+)’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제조업과 융합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금융 등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인터넷 플러스(+)’를 중국 경제의 새로운 테마로 내걸었다.

박순우 상무는 “인터넷플러스(+)-는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기조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재편해나가고 있다”면서, “중국 투자 업계 역시 이 인터넷플러스(+)-에 기반해 인터넷,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금융 분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래툰 2015-11-27] 정새롬 기자

## LB인베스트, 中진출 10년..선택과 집중' 통했다

올해 IPO 8곳..평균 40억 투자

매주 월요일 아침, LB인베스트먼트(이하 LB인베) 심사역들은 의자를 바짝 당겨 앉는다. 모니터에는 회사 전체의 딜 진행상황이 공유된다. 한국과 중국에 위치한 15명의 심사역들은 양국의 투자 트렌드를 읽느라 여념이 없다. 벤처캐피탈(VC)부문 대표를 맡은 박기호 부사장이 내린 조치다.

LB인베는 크게 VC부문과 프라이빗에쿼티(PE)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그중 VC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 13개 조합에 5692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SME1그룹은 정보통신(ICT) 투자를, 2그룹은 바이오투자를 담당한다. 전략투자실은 LG그룹 계열사의 투자를 맡고 있다. CBI그룹은 중국 투자를 전담한다. 심사역 15명 중 5명이 중국 법인 소속이다. 이 중 3명을 현지 채용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법인은 LB인베의 투자철학인 ‘선택과 집중’에 큰 공을 세웠다. 중국 시장이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하드웨어 분야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며 “3년 전부터 투자 분야를 전환한 결과 올해 LB인베가 투자한 800억원(22개 기업) 중 하드웨어 투자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투자분야를 정하는 게 ‘선택’의 문제였다면 얼마를 넣을 것인가는 ‘집중’에 해당한다. 현재 LB인베는 70여 개 기업에 3000억원 가량 투자한 상태다. 회사당 평균 40억원 내외다. 20억원 미만의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박 대표는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필요한 금액을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과 사업방향을 꼼꼼하게 논의해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 결과 50억원을 투자한 하이즈항공이 기업 공개(IPO)에 성공하면서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냈다.

투자기업 70여 곳 중 올해(8곳)와 내년(7~8곳) IPO 대상 기업만 15곳 내외에 이를 정도로 타율이 높은 이유도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최근 투자 실적 기준으로 내부수익률(IRR)을 가장 높게 낸 곳은 실리콘웍스다. 2008년 70억원을 투자해 2010년 IPO로 802억원을 회수했다. IRR 기준으로 353%다. 30억원을 투자한 휴젤의 경우 올해 초 3차 매각 방식으로 IRR 104%를 기록하며 76억원을 회수했다.

LB인베가 이처럼 연타석 홈런을 날릴 수 있었던 데는 인력 선발 방식도 한몫했다. 박 대표는 “과거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는 경험이 강조됐지만 최근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경력을 가지고 있는 심사역들을 뽑아 선임 심사역과 한 팀을 이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회사 성장모델과 IT회사 성장모델이 다른 만큼 ‘구력(球歷)’보다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젊은 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2015-12-17] 조진영 기자

## 2015년 벤처 투자액, 2조원 안팎 전망...2000년 이후 최고치

### VC News

지난해 동안 국내 벤처캐피탈(VC)들이 집행한 투자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벤처캐피탈 투자금 총액 만으로도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 금액 합계는 2조원을 넘거나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연간 투자액이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지만, 12월 들어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2조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투자 금액이 2조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최근 15년 내 최고 기록은 이미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총액은 1조8271억원으로, 이미 2014년 연간 투자금 합계(1조6393억원)보다 많다. 이는 지난 2000년(2조211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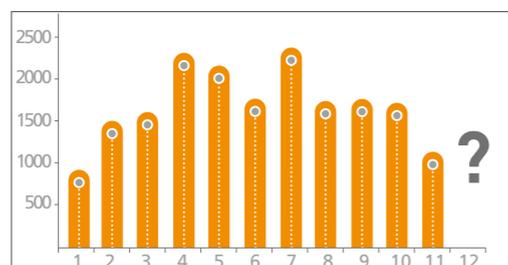
한국벤처캐피탈협회측은 지난해 11월까지 활발했던 벤처 투자가 12월 들어 살짝 주춤해진 이유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말 증시 침체가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악화로 이어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중국 주식시장 침체 등 악재가 맞물리며 벤처 투자 업계의 분위기도 다소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지난해 1~11월 벤처캐피탈 누적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는데, 이 증가율을 연간 투자금액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해 투자액은 총 2조1310억원 수준이 된다”며 “그러나 12월 들어 벤처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연간 투자금 합계가 2조원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700선 턱밑까지 바짝 추격했던 코스닥지수는 12월 14일 630.37까지 떨어졌다. 11월 말~12월 초까지 2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지수도 현재 1925.43까지 떨어진 상태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VC부문 대표는 “지난해 벤처 투자가 워낙 활발히 이뤄진 만큼, 연말까지 투자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01-07] 노자운 기자



| 2015년 월별 벤처 투자 금액 합계 /자료=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VC가 만든 PEF, 투자의 질이 문제다

### PE News

벤처캐피탈이 만든 사모투자펀드(PEF)도 의미 있는 바이아웃(Buy-out) 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시도는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딜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나 그로스 캐피탈(Growth capital)에 머무르고 단순 재무적 투자자(F)의 입장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중소형 규모라 하더라도 꾸준히 바이아웃을 시도하며 레코드를 쌓아야 한다."

연말 국내 벤처캐피탈 리그테이블(League Table) 취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쓴소리들이다. 현재 국내의 규모 있는 벤처캐피탈들은 벤처투자(VC)와 사모투자(PE) 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부 대형 벤처캐피탈에서는 아예 PE 부문에만 몇 년째 전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 경우 같은 영역에 있는 독립형 전문 PEF를 뛰어넘는 규모를 자랑하기도 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PEF 조성 열풍에 휩싸인 것은 약 5~6년 전부터다. 지금은 PE로 전환하다시피 한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등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여전히 벤처캐피탈 PEF 영역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국내는 유독 VC와 PE의 분리가 심한 편이다. 2010년 이전만 해도 벤처캐피탈이 PEF를, 그것도 바이아웃 딜을 하겠다고 펀드레이징에 나서면 입찰에서부터 고전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후 다소 경계가 무너진 후에야 정책자금에 기반한 앵커 유한책임투자자(LP)들이 벤처캐피탈 PEF에 출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벤처캐피탈 PEF는 펀딩과 투자, 회수 등 전 부문에서 2014년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현 정부의 벤처 키우기가 이어지면서 벤처캐피탈들도 위탁운용사(GP)로서 보다 손쉽게 정책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벤처조합에 집중한 탓이 컸다. 여기에 일부 벤처캐피탈의 내부 사정과 과거 PEF 운용문제 등도 겹치면서 주춤한 한 해를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 PEF 투자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PEF의 국내 도입 자체가 이제 막 11년을 넘었으니 아직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바이아웃보다는 그로스 캐피탈에 집중하는 투자 행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국내 사모시장에서도 결국 PE와 VC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도 PEF 투자의 질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겠다.

[더벨 2016-01-06] 김나영 기자

## ‘직방’ 기업가치 상승세...벤처캐피탈 회수 기대감↑



회 사 명 직방

대표이사 안성우

설 립 일 2010.11.26

투 자 일 2015.02.25

사업분야 SW/Contents

최근 2100억 원 밸류로 38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부동산 정보앱 서비스 ‘직방’이 외국계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경총 뛰어올라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의 회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16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직방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3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3월 투자를 받은 뒤 9개월 만이다.

직방의 현재 기업가치는 대략 2100억 원 상당으로 9개월 만에 두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직방은 지난 3월 포스코기술투자, 스톤브릿지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블루런벤처스 등으로부터 21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알려진 기업가치는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부 벤처캐피탈들의 경우에는 회수 기대감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기술투자는 2011년 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48억원 밸류로 5억 원을 투자했다. 캡스톤파트너스 역시 작년 70억원 밸류로 5억 원을 투자했다. 기업가치가 최소 30~40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직방에 투자한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당장 회수에 들어가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추이를 더 지켜보고 투자회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직방의 성장성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직방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 수익구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방의 성장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투자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직방은 블루런벤처스 투자심사역 출신의 안성우 대표가 2010년 말 설립한 업체로, 지난 10월 사명을 채널브리즈에서 직방으로 변경했다. 직방은 서비스 이후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등 부동산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수는 1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누적매출 수는 200만 건을 웃돌고 있다.

[더벨 2015-12-21] 현대준 기자

## 텍스터 상장 가시화, VC들 '싱글벙글'



회 사 명 텍스터디지털

대표이사 김용화

설 립 일 2011.11.29

투 자 일 2013.05.08

사업분야 3D, CG(VFX) digital studio

LB·KTB·대교 등 3~4배 수익 가능...회수시기 '처음질'

시각효과(Visual Effect, VFX) 전문기업 텍스터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의 회수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텍스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이 상장 직후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원금 대비 3~4배 이상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투자를 집행했던 LB인베스트먼트는 가장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LB인베스트먼트는 11월 초 이미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20억 원 규모의 원금회수에 성공했다. 잔여지분은 보통주 60만 주로 규모는 공모가(주당 1만 4000원) 기준으로 84억 원에 달한다. 투자 원금 대비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략)

높은 기대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들은 바로 투자회수에는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의 상당부분이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데다가 상장 이후 텍스터의 기업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갖고 주가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회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텍스터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각효과 전문기업의 첫 상장 사례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는 등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세가 가파라지고 있는만큼 보호예수 기간과 상관없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들은 앞서 인수한 우선주 전량을 1대 1 비율로 보통주 전환하면서 텍스터의 상장을 지원했다. 상장 시 RCPS를 부채로 인식하는 IFRS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어 200% 무상증가와 10대 1의 액면분할을 통해 보유주식은 30배로 늘어났다.

현재 텍스터는 공모가를 1만 4000원으로 확정된 뒤 상장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모주 청약은 50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벨 2015-12-24] 현대준 기자

## LB·블루런벤처스, 엔터메이트 2배 수익 '전망'

### ENTERMATE®

회 사 명 엔터메이트

대표이사 이태현

설 립 일 2001.11.01

투 자 일 2013.12.23

사업분야 웹게임, 모바일게임

투자 수익 45억 상회할 듯... "3배 이상도 가능"

게임 개발사 엔터메이트에 투자했던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코리아(이하 블루런벤처스)가 2년만에 대박 수익 을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출시하는 신규 게임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의 투자 수익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8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는 엔터메이트 보통주 각각 344만 9170주를 보유중이다. 지분율은 13.17%씩이다.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는 지난 2013년 말 엔터메이트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보통주 50억 원 어치씩을 인수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50만 원으로 총 1만 주를 매입했다. 인수자금은 L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LB제미니신성장펀드 16호'와 'KoFC-LB 파이오니어 챔프 2011-4호 투자조합'을, 블루런벤처스는 'BRV 로터스 펀드 2012 L.P'를 통해 각각 조달했다.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는 이후 엔터메이트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보유 주식을 각각 31만 주로 늘렸다. 한국2호스팩(SPAC)과의 합병 결정에 이후에는 비율(1:5.5659091)에 따라 엔터메이트 보통주 344만 9100여 주를 보유중이다. 지분율은 12.68%로 주당 취득단가는 1450원으로 변경됐다.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는 투자기간이 2년을 넘지않아 합병신주의 상장이후 1개월간인 이달 말까지 일부 물량(각각 18만 6000여 주)이 보호예수된다.

엔터메이트의 주가는 2770원(8일 종가기준) 수준이다.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이달말까지 주가가 유지된다면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의 회수 규모는 95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원금을 제외하더라도 투자 2년만에 45억 원씩의 투자 수익이 예고된 셈이다. 엔터메이트의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수익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에 나섰던 벤처캐피탈들은 상장직후 일부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한 회수 물량이 많았음에도 엑시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탈 관계자 역시 "엔터메이트가 상반기 다수의 퍼블리싱을 준비하는 등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며 "회사간 협의를 통해 일부 회수에 나설 수도 있지만, 성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중장기 보유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엔터메이트는 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개발 등 게임 퍼블리싱 전문 기업이다. 2012년 중국 유명 게임이었던 '신선도 온라인'의 판권을 확보하며 국내 웹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엔터메이트는 '와룡전설', '천년도', '성세삼국' 등 연이은 웹게임과 '아이러브삼국지 for kakao', '노예가되어줘 for kakao' 등 모바일 게임을 선보이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다.

엔터메이트는 2014년 매출액 267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1억 원과 2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매출 10억 원 이상의 게임만 8개 달하는 등 포트폴리오별 고른 매출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최대주주는 박문해·이태현 대표이사가 52.23%를 보유중이다.

[더벨 2016-01-12] 김세연 기자

## LB인베스트, 하이즈항공 본격 엑시트 추진



회 사 명 하이즈항공

대표이사 하상헌

설 립 일 2001.12.01

투 자 일 2010.08.31

사업분야 항공기부품

투자 원금 대비 2배 회수...블록딜로 10배 수익 기대

LB인베스트먼트가 5년 전 투자했던 하이즈항공을 통해 본격적인 엑시트(투자 회수)로 대박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상장전 이미 투자 원금의 2배 이상을 회수한 LB는 향후 블록딜을 통한 매각도 추진중 이어서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LB는 지난 11월 운용 중인 'LB제미니신성장펀드16호'를 통해 보유 중 이던 하이즈항공의 보통주 9만 5500주를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평균 1만 7261원으로 회수 규모 는 총 16억 2000만 원 가량이다.

LB 관계자는 "상장 이후 장내 매각에 나선 것은 수익 창출보다는 시장내 유동물량 확대 등을 위해 일 부 물량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조합만기가 남아있는데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남아있는 물량은 시장내 영향을 주지않는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B는 지난 2010년 하이즈항공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133만 주를 인수했다. 매입 단가는 주당 3750원으로 총 인수규모는 50억 원이다. 이후 무상증자(1주당 2.5주) 등을 거쳐 하이즈항공의 보유 주식은 266만 주로 늘었다. 전환가액 역시 증자에 따라 1500원으로 조정됐다.

LB는 이미 프리 IPO 단계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투자 원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DSC인베스트먼트에 하이즈항공 우선주 66만 5000주를 매각하며 18억 원 가량을 회수했던 LB는 장외시장에서 물량 매도에 나서며 100억 원 이상을 회수했다. 투자 원금의 2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유중인 하이즈항공의 지분을 감안할 때 LB는 투자 원금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 달성도 무난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분 매각 이후 LB가 보유중인 하이즈항공의 보통주는 213만 500주다. 하이즈항공의 3일 증가 인 주당 1만 7200원으로 평가하면 추가 수익은 366억 4500만 원 가량이다. 이전 회수 분을 더하면 LB 의 회수 규모는 500억 원 규모에 육박해 투자 5년만에 투자 원금을 제외하고 400억 원이상의 순수익 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LB관계자는 "장기성 투자처를 찾는 해외 증권사 등으로부터의 블록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이즈항공의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극대화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모두 고려한 회수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하이즈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주날개의 고부가가치 탄소복합소재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항공부품 제작사다. 지난달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하이즈항공은 지난해 매출 313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 순이익 31억 원을 각각 달성했다. 최대주주는 하상헌 대표로 44.2%를 보유 중이다.

[더벨 2015-12-09] 김세연 기자

## LB인베스트먼트, 오진양행 경영권 인수



**회 사 명** 오진양행  
**대표이사** 김문수  
**설 립 일** 1992.05.01  
**투 자 일** 2015.11.03  
**사업분야** 커피머신, 제빙기  
오븐 등

### 오너 지분 100% 400억원에 인수키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LB인베스트먼트가 외식업체용 주방 설비 공급회사인 오진양행을 인수한다. 경영권이 수반된 바이아웃 거래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LB인베스트먼트는 오진양행 오너가 보유한 지분 100%를 400억원 가량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현재 LB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된 상태며, 상세 실사가 진행중이다. 실사 과정에서 심각한 할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중인 가격에서 그대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오너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오진양행 인수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매각 대금의 일부를 재투자하고, 고문으로 남아 LB인베스트먼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기존 오너를 대신할 새로운 전문경영인(CEO)도 미리 선임하는 등 오진양행 경영을 위한 준비작업도 어느 정도 끝내놓았다.

오진양행은 국내 외식관련 업소용 주방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커피머신과 제빙기가 주력 품목이며 오븐, 아이스크림기계, 튀김기 등도 취급한다.

단순 설비 유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진다는 점이 오진양행의 강점으로 꼽힌다. 또 40년에 가까운 업력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수 메리트 평가된다.

오진양행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온 회사다. 작년 2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64억원의 영업이익과 55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나타냈다.

재무구조 역시 탄탄하다. 무차입 경영이 지속되면서 차입금 없이 현금성 자산만 9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10%에 채 못 미친다.

꾸준한 실적이 이익 잉여금 증가로 반영되면서 납입 자본금은 5억원에 불과하지만 자산총계는 250억원에 달한다.

[더벨 2015-09-11] 김일문 기자



**회 사 명** 엠모니터

**투자분야** 바이오/의료

**대표이사** 전효성

**설 립 일** 2014.07.10

**투 자 일** 2015.11.13

**사업분야** 분자진단 POCT (Point-of-Care Testing; 현장검사)

**홈페이지** -

**회사소개** 현장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중인 회사로, 오랜 기간 진단분야 연구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과 인체 감염에 대한 빠르고 간편한 분자진단을 통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빠른 진단 및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온 PCR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등온증폭 방식의 LAMP 기술로, 기존 PCR 방식에서 온도 증폭/냉각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면서 포터블하고, 빠르고 간편한 분자진단에 강점이 있다. 동물 전염병에 대한 현장 진단을 시작으로 인체감염 진단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질병의 대규모 현장 진단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이다.



**회 사 명** 에빅스젠

**투자분야** 바이오/의료

**대표이사** 유지창

**설 립 일** 2000.06.08

**투 자 일** 2015.11.26

**사업분야** AIDS 치료제 개발, 펩타이드 개발

**홈페이지** www.avixgen.com

**회사소개** AIDS 치료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약 발굴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저분자 AIDS 치료제는 비임상을 마쳤으며 국내에서 임상1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빅스젠의 AIDS 치료제는 기존의 기전과는 다른 신규한 접근으로 HIV-1(AIDS의 원인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이 비임상에서 확인되어 향후 임상 단계에서 조기 기술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빅스젠의 치료용 펩타이드도 감염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생산토록 하여 AIDS를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개발 중이며,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다.

또한 AIDS 치료제 개발 목적으로 확보한 신약 발굴 시스템 기술을 통해 향후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B News  
LB in Media  
VC News, PE News  
Portfolio News  
New Portfolios



**회 사 명** 모비릭스

**투자분야** 게임

**대표이사** 임중수

**설 립 일** 2007.07.09

**투 자 일** 2015.12.17

**사업분야** 모바일 게임

**홈페이지** www.mobirix.com

**회사소개** 모비릭스는 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 회사로서, 80여개 이상의 게임을 17개국 언어로 글로벌 원빌드 체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다. 모비릭스의 게임은 일평균 다운로드수가 30~40 만건에 이르고, 월평균 글로벌 이용자가 2,000만명을 상회하며, Maze King, Unlock King, Snake ladders, 1945 등 1,000만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글로벌 게임서비스 역량은 기존의 국내 어느 퍼블리셔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차별화된 역량이며, 기획보된 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중심에서 인앱결제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캐주얼 게임 중심에서 미드/하드코어형 게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제작사로부터의 게임소싱 및 활발한 제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격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회 사 명** 버즈빌

**투자분야** ICT 서비스

**대표이사** 이영호, 이관우

**설 립 일** 2012.05.01

**투 자 일** 2015.12.22

**사업분야** 모바일 광고 플랫폼

**홈페이지** www.buzzvil.com

**회사소개** 버즈빌은 2012년 설립, 연쇄창업가인 이영호, 이관우 대표가 이끄는 Ad-Tech분야의 스타트업이다. 버즈빌은 데일리픽, 티켓몬스터, 웬버스 등 성공한 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구글 등 우수기업의 주요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 구성원들이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인 허니스크린을 2013년 1월 런칭해 600만명의 유저에게 서비스 중이며, 2015년 5월 간단한 삽입만으로 기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잠금화면 SDK버즈스크린을 출시했다. 버즈스크린은 출시한지 몇 개월 사이에 폭발적인 성과를 얻고 있으며, 대표적인 글로벌 Ad-tech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회 사 명** 오진양행

**투자분야** 유통/서비스

**대표이사** 박갑정

**설 립 일** 1992.05.01

**투 자 일** 2015.11.03

**사업분야** 커피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설비 공급 및 서비스

**홈페이지** www.ohjin.co.kr

**회사소개** 오진양행은 국내 외식관련 업소용 주방설비의 공급 및 서비스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국내 1위 업체이다. 글로벌/로컬 프랜차이즈 및 호텔, 레스토랑, 마트, 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커피머신, 제빙기, 오븐, 아이스크림 머신 등 다양한 주방설비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외식관련 고객들에게 one-stop shopp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하남에 물류센터 및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직영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A/S 전국망 및 인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 사 명** 현대엘리베이터

**투자분야** 전기/기계/장비

**대표이사** 한상호

**설 립 일** 1984.05.23

**투 자 일** 2015.11.06

**사업분야** 승강기 및 비승강기(주차설비, 물류자동화시스템, 승강장스크린도어(PSD))제품 생산 및 판매 · 설치 · 유지보수(A/S) 사업을 영위

**홈페이지** www.hyundaelevator.co.kr

**회사소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42%~4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국내 1위 승강기 제조업체이다. 당사는 최근 승강기 안전관련 법령강화 등으로 국내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 승강기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된다.